

## 설 연휴기간 총 3,071만 명 이동

- 특별교통대책 기간(2.8.~2.12.)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29.7% 감소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이번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(2.8.~2.12., 5일간) 동안 총 3,071만 명이 이동하였으며, 이는 전년 2,787만 명(5일간) 대비 10.2%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.

□ 고속도로 총 통행량은 전년 대비 7.9% 증가한 2,721만 대이며, 설 당일(2.10) 통행량은 설 연휴기간의 일 통행량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인 629만 대를 기록했다. 이는 팬데믹 이후 귀성·여행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.

○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구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,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\*하였다.

\* 서울→부산은 전년 대비 10분 감소, 서울→목포는 전년 대비 20분 감소

□ 교통수단별 분담률은 승용차 이동비율 증가로 승용차 분담률이 전년 대비 0.9% 증가(92.2%→93.1%)하고, 여행 수요 확대 등으로 항공 분담률도 다소 증가(0.6%→1.2%)하였다.

\* ('23년 설) 승용차 92.2%, 버스 4.3%, 철도 2.6%, 항공 0.6%, 해운 0.3%  
( '24년 설) 승용차 93.1%, 버스 3.5%, 철도 2.0%, 항공 1.2%, 해운 0.2%

□ 또한, 고속도로 휴게소,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이용 편의 서비스도 차질 없이 제공하여, 국민들이 이동 중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.

○ 3,500원 이하 알뜰간식 판매(10종 이상)는 전체 휴게소(207개) 중 202개 휴게소(97.5%)에서 시행하였고, 휴게소 혼잡안내를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인력을 증원하였다. 이동식 전기차 무료 충전서비스는 11개 휴게소에서 504대가 이용하였다.

□ 특히, 뉴미디어와 전광판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홍보를 강화하여,

- 대책기간 중 전국의 교통사고\* 발생건수는 1,201건으로 전년(1,983건) 대비 39.5% 감소하고, 사망자 수는 19명으로 전년(27명) 대비 29.7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\* '24.2.12(월), 24시 기준 잠정치로, 향후 경찰청의 교통사고 집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- 철도, 항공의 경우에도 시설물 안점점검을 강화하고 비상근무체계 운영을 통한 혼잡 관리로 특기할 만한 사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.

□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“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올해 설 특별교통대책이 잘 시행된 것에 대해 감사한다”면서,

- “이번 연휴기간의 교통수요 분석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안전과 이동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<br><총괄> | 종합교통정책관<br>교통정책총괄과 | 책임자 | 과 장 | 이재평 (044-201-3804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김광수 (044-201-3791) |

